

《인터넷 생태계 진단》

인터넷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서평자 김방희(생활경제연구소 소장),  
(KBS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진행자

이번에 발간하는 책은 《인터넷 생태계에 대한 9가지 질문》의 후속작으로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속한 열 명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 2년 동안 함께 공부하고 고민한 결과이다. ('책을 시작하며'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저 '인스타' 또는 '네이버'라고만 한다.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방식에는 이름이 따로 필요 없는 법이다. 대신 자신이 자주 머무르는 곳 주소 정도나 알고 있으면 된다.

50대 중반인 내가 젊었을 때는 인터넷을 몰랐다. 메인프레임에서 PC로 옮겨가던 컴퓨터 환경을 간신히 이해하는 정도였다. 커다란 전산 용지에 천공을 해가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왜 해야 할까'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다. 경제부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소개받기는 했지만 당시 전화 회선을 통해 접근해야 했던 그 세계에 내가 원하는 정보나 지식은 별로 없었다. 번거로운 가윗일을 미래라고 부르는 것을 납득할 수 없을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틀린 것이었다. 이제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일이 됐고, 예외가 일상이 됐다.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인터넷의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오늘날 인터넷이 단순히 미국 국방부와 몇몇 대학이 시작한 정보망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책에 쓰인 것처럼 인터넷은 SNS와 온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의 일부가 됐고, 젊은 세대에게는 별도의 이름조차 필요 없는 '삶의 방식'이 됐다.

놀라운 것은 그 오랜 시간 인터넷의 진화를 목격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이 매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연예인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댓글문화는 왜 바뀌지 않을까'. '가짜 뉴스를 노골적으로 퍼뜨리는 유튜브가 왜 기성 미디어보다 신뢰를 받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누군가 나서서 이런 질문에 답해 주기를 바랐고, 《인터넷 생태계 진단》에서 답을 찾게 됐다. 이 책에서는 정보통신 혹은 뉴미디어 전문가들이 10개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한다. '뉴스 댓글은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유튜브에서의 모방은 어떻게 다른지' 하는 것이다. 모든 질문에 확고한 답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궁금증이 상당 부분 풀린다. 무엇보다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삶의 일부, 삶의 방식이 돼 버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켜 준다.

답변자들이 모두 교수들이라는 점도 놀라운 일이다. 사실 학계는 세상사에 둔하고 느린 편이다. 벌어진 일을 해석하는 데는 정평이 나 있지만 새로운 일을 전망하는 데는 약한 편이다. 정보통신이나 뉴미디어 분야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계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들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 그 도전 정신을 특별히 높이 사고 싶다. 그들은 공통의 관심사로 협업해 질문을 정하고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해 답했다. 이 분야에 필요한 풍부한 해외 자료와 사례가 이 책의 강점이다. 세계적인 매체의 댓글 정책이나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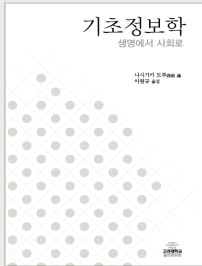


김성철 외 | 2020년 3월 23일 발간  
신국판 | 24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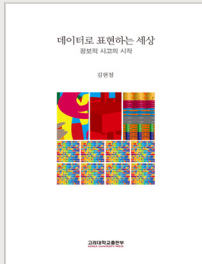
책을 시작하며

- 우리는 인터넷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 정세훈
- 인터넷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고? | 정일권
- 뉴스 댓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 백현미
- 생존 위기의 만화가들은 어떻게 세계적 웹툰작가로 성장했나? | 윤형원
- 네이버 V Live는 후발주자로서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 황신영
- 유튜브에서의 모방은 어떻게 다른가? | 이새롬
- 왜 한국에는 우버가 없을까? | 류민호
- 인공지능은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 최보름
- 맞춤 추천 정보로 인한 필터버블, 우리는 정말로 조정당하고 있나? | 김용환
-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들은 잘하고 있나? | 김성철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기초 정보학 | 니시카키 도루 지음,  
이원규 옮김



데이터로 표현하는 세상  
- 정보적 사고의 시작 | 김현철 지음

서비스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늘 궁금했던 사안이다.

다만, 각자 편한 방식으로 답을 하다 보니 글의 형식과 설득력이 제각각이다. 이 모임의 네이버 측 참가자인 두 필자의 글은 아무래도 회사의 성과를 자찬하거나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편함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질문을 선별해 읽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낙 생태계의 변화가 빠르고 예측불가인 점을 감안하면 5년 후에는 답변의 상당 부분을 고쳐야 할지도 모른다. 아예 질문의 상당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 생태계 진단 2.0》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글에서도 일관성을 획득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은 잘 하고 있나?’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긍정적이기를 바란다.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 중심의 삼성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서 주변부로 밀리지 않았다는 낭보가 꼭 실렸으면 한다.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서 말이다. ■

책과 가까이, 더 넓은 세상

KOREA  
UNIVERSITY  
PRESS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